



우리나라 최초 글자꼴 디자이너 세종대왕 명맥 잇는 산돌 커뮤니케이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일본에서 한글 서체를 수입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한글 서체 개발사업에 뛰어든 산돌커뮤니케이션은 20여년 간 한결같이 한글서체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김도형

한글 서체 개발은 우리의 천직

지난 1984년부터 서체개발이라는 한 우물을 파온 산돌커뮤니케이션은 그 동안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모두 수주하며 국내 최고의 서체개발회사로 등극했다. 1999년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신문 전용 서체를 개발한 데 이어 윈도우 X P에 이은 차기 버전에 탑재될 서체 개발과 삼성그룹 전용서체 개발까지 산돌커뮤니케이션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화려하기 그지없다. 최근에는 '뽕수생각' 저자의 손글씨를 지속적인 자판 테스트를 거쳐 디지털화에 성공,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한글은 과학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도 우리나라 최초의 글자꼴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죠” 한글 서체 개발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산돌커뮤니케이션 이경배 폰트개발기획팀장의 말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자보다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로 자음과 모음의 완벽한 조합 덕분에 지금의 한글이 존재한다’고 밝히는 이경배 팀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글 서체도 다양화되어가고 있지만 내세울만한 서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체를 다듬는데도 장인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교육 지원 활동 앞장서

산돌커뮤니케이션은 문화산업으로 이어지는 국내외 교육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매년 회사 이익의 10%를 기부해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오지를 찾아다니며 학교 지어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를 짓는 현장마다 직원들이 총 출동해 현장 체험의 기회도 마련해준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동참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팀장의 재량에 따라 직원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3년 말부터 장래희망으로 폰트디자이너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선배 기업인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산돌커뮤니케이션 1일 견학프로그램인 ‘산돌투어링’을 통해 한글 강의 및 서체 제작과정 실무를 공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글 박물관 건립 추진

이름답고 과학적인 한글을 만들어 준 세종대왕께 감사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산돌커뮤니케이션 석금호 사장은 30년 사업으로 한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식자기나 고 타자기 등 자료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석금호 사장은 한글이 세계적 문화 유산인 만큼 이를 소재로 한 박물관을 민간기업이 건립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나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60여 년 전, 한글창제를 통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한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욱 진보된 한글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에 보답하는 길이요, 우리가 후손에게 다할 책임이자 의무임에 틀림없다. 그런 면에서 산돌커뮤니케이션은 세종대왕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기업이 아닐까. ▣

한글 사랑, 기업사랑 독자 이벤트



네티아@매거진에서는 산돌 Window True Type Font(클래식, 캐주얼, 미래) CD 3개를 독자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CD를 받고 싶으신 분께서는 3개 중 선택해 사보@네티아@sabo@netpia.com 또는 독자엽서에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